

2026. 7. 20.(월)

회 원 조 사 팀

2026년 3/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

안산상공회의소

목 차

I. 조사 개요	2
II. 2026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	4
1. 종합 경기전망	4
2. 업종별 경기전망	5
3. 항목별 경기전망	6
4. 기타 조사 내용	7

I

조사 개요

1. 조사 목적

- 본 조사는 안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유관기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조사 대상

- 안산지역 제조업체

3. 조사 기간

- 2026년 5월 18일(월) ~ 2026년 6월 1일(월)
- 보완 조사: 2026년 6월 2일(화) ~ 2026년 6월 17(수)

4. 조사 방법

- 온라인 조사

5. 조사 내용

- 2026년 2/4분기 실적 및 2026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
(체감경기, 매출액, 영업이익, 설비투자 등)
-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하반기 경영·운영계획 등

6. 응답 현황: 총 103개사

업 종	응 답 수	업 종	응 답 수	업 종	응 답 수
섬유의복	4 (3.9%)	비 금 속	7 (6.8%)	전기전자	20 (19.4%)
목재종이	5 (4.9%)	철강금속	22 (21.4%)	운송장비	6 (5.8%)
석유화학	9 (8.7%)	기계설비	25 (24.3%)	기 타	5 (4.9%)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작성 방법

- 응답 업체의 직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를 ‘호전’, ‘악화’, ‘불변’으로 표시한 후, 이를 지수화함.
-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한 경우 ‘호전’으로 표시한 업체가 ‘악화’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인 경우 ‘악화’로 표시한 업체가 ‘호전’으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냄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 (BSI)} = \frac{\text{'호전' 응답업체수} - \text{'악화' 응답업체수}}{\text{전체 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BSI = Business Survey Index

$$0 \leq \text{BSI} \leq 200$$

8. 제조업종별 재분류

- 본 보고서상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유사 업종을 통합시켜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으며,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.(《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》 분류 기준)

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 재분류표

업 종	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	재 분 류	비 고
섬유제품 제조업	13	섬유의복	피혁, 염색, 가죽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		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		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16	목재종이	출판, 인쇄, 펄프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		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		
가구 제조업	32		
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	석유화학	석유화합물, 도료, 의약품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		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		
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	22	비 금 속	고무, 플라스틱, 비금속광물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		
1차 금속 제조업	24	철강금속	철강, 금속, 조립금속
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5		
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	전기전자	전기장비, 전자부품
전기장비 제조업	28		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	기계설비	기계설비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	운송장비	자동차 부품, 운송장비 부품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		
그 외 제조업	10,11,12,27,33,34	기 타	정밀기기, 식료품 등

II 2026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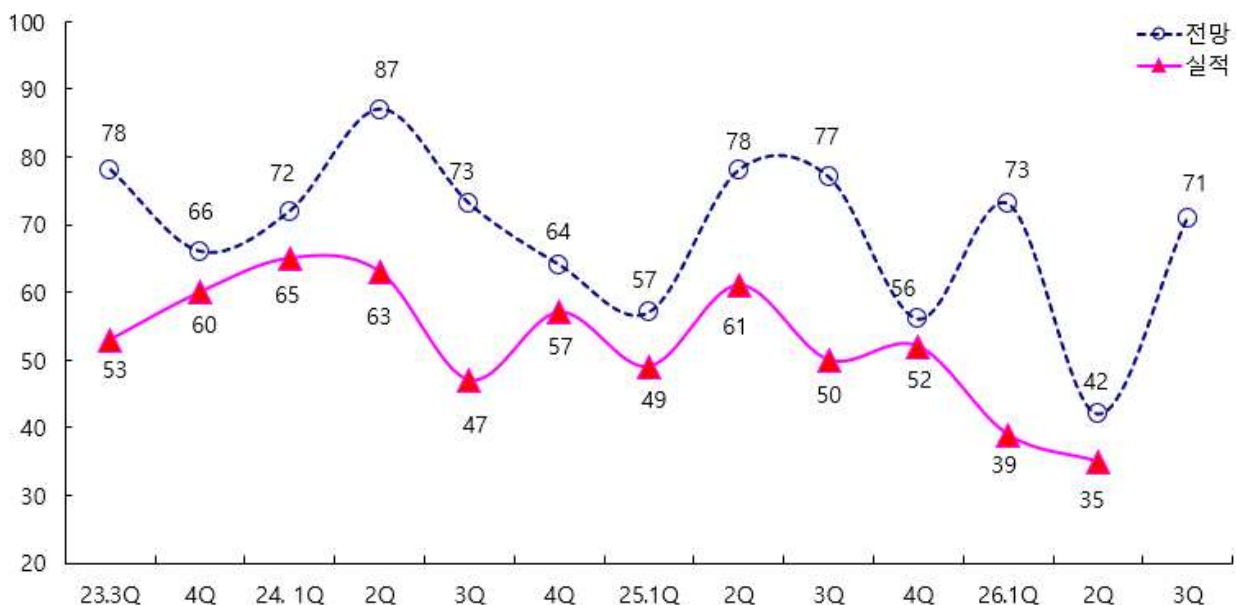
1. 종합 경기전망

안산 제조기업 26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 '70.9', 전 분기 대비 상승에도 여전히 기준치(100) 크게 하회

- 전국(79.6)·경기(82.6) 대비 낮은 수준...안산지역 기업 체감경기 회복 더뎠다
- 안산 제조기업 경기전망 변동 폭 크게 확대...경영환경 불확실성 고조

- 안산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'2026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' 결과에 따르면, 2026년 3/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종합 전망치는 '70.9'로 집계됐다.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(79.6)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(82.6)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,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(100)에는 크게 못 미쳤다.
-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본 결과, 2026년 들어 분기별 전망지수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종합)



※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,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.

2. 업종별 경기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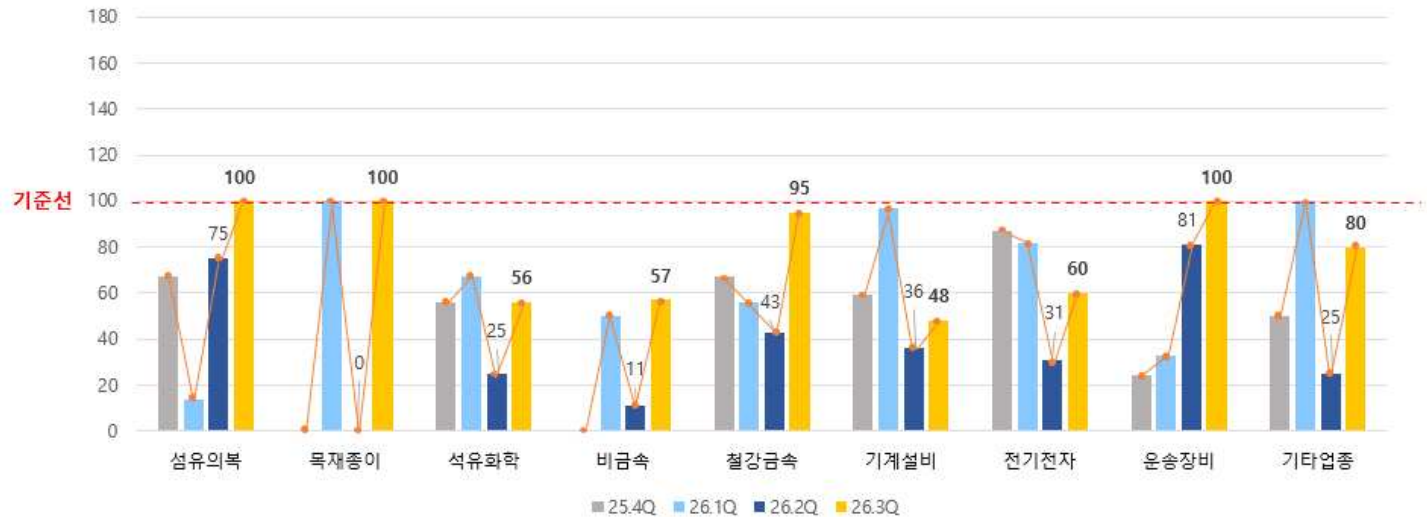
- 섬유 의복(100), 목재 종이(100), 운송 장비(100), 철강 금속(95) 업종은 보합 전망됨.
- 기타(80) 업종은 부진 전망됨.
- 전기 전자(60), 비금속(57), 석유 화학(56), 기계 설비(48) 업종은 침체 전망됨.

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업종	2025			2026			비고	업종	2025			2026			비고
	2/4	3/4	4/4	1/4	2/4	3/4			2/4	3/4	4/4	1/4	2/4	3/4	
종합경기	78	76.7	53.3	72.9	41.8	70.9	☂	철강 금속	57	73	67	56	43	95	☁
섬유 의복	129	143	67	14	75	100	☁	기계 설비	67	50	59	97	36	48	☂
목재 종이	100	150	0	100	0	100	☁	전기 전자	113	79	87	82	31	60	☂
석유 화학	78	63	56	67	25	56	☂	운송 장비	100	58	24	33	81	100	☁
비금속	67	100	0	50	11	57	☂	기타	64	94	50	100	25	80	☁

주: 1) ☆ = 호조(106~), ☁ = 보합(105 ~ 95), ☂ = 부진(94 ~ 75), ☂ = 침체(~74)

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

3. 항목별 경기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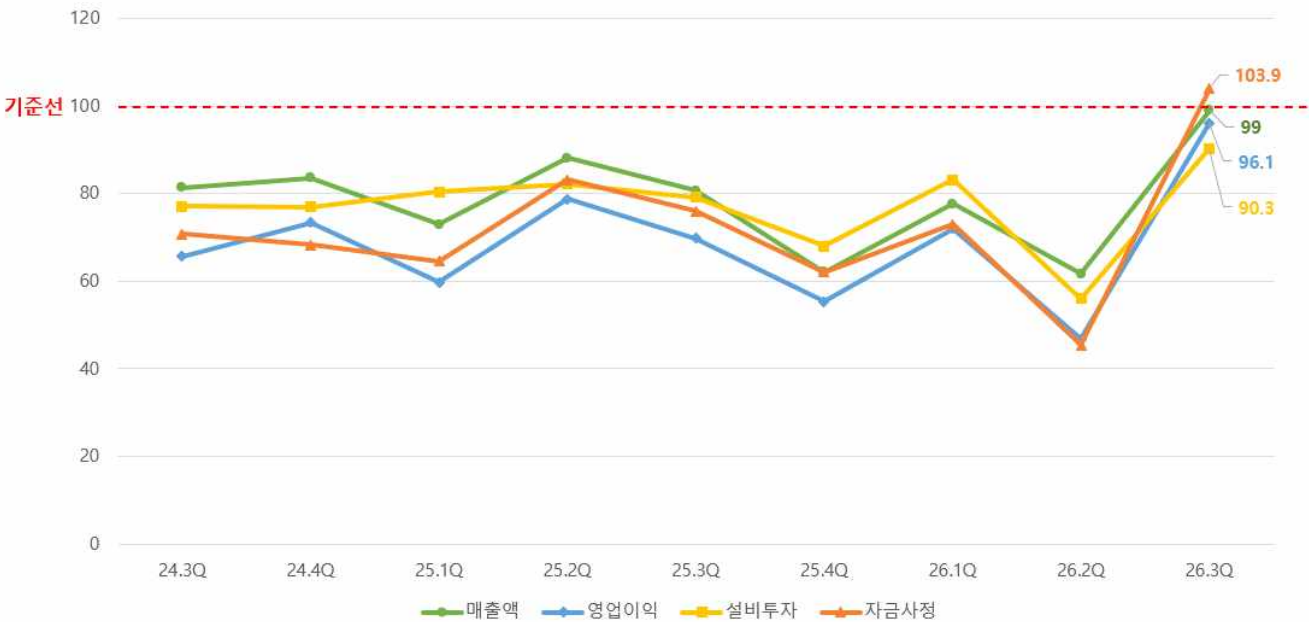
○ 자금사정(103.9), 매출액(99.7), 영업이익(96.1)은 보합,
설비투자(90.3)는 부진 전망됨.

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구 분	2025			2026			비 고
	2/4	3/4	4/4	1/4	2/4	3/4	
종합(체감)경기	78.0	76.7	55.3	72.9	41.8	70.9	☂
매 출 액	88.1	80.6	62.1	77.6	61.7	99.0	☁
영업이익	78.8	69.8	55.3	72.0	46.8	96.1	☁
설비투자	82.2	79.1	68.0	83.2	56.0	90.3	☁
자금사정	83.1	76.0	62.1	72.9	45.4	103.9	☁

주: 1) ☆ = 호조(106~), ☁ = 보합(105 ~ 95), ☁ = 부진(94 ~ 75), ☂ = 침체(74~)

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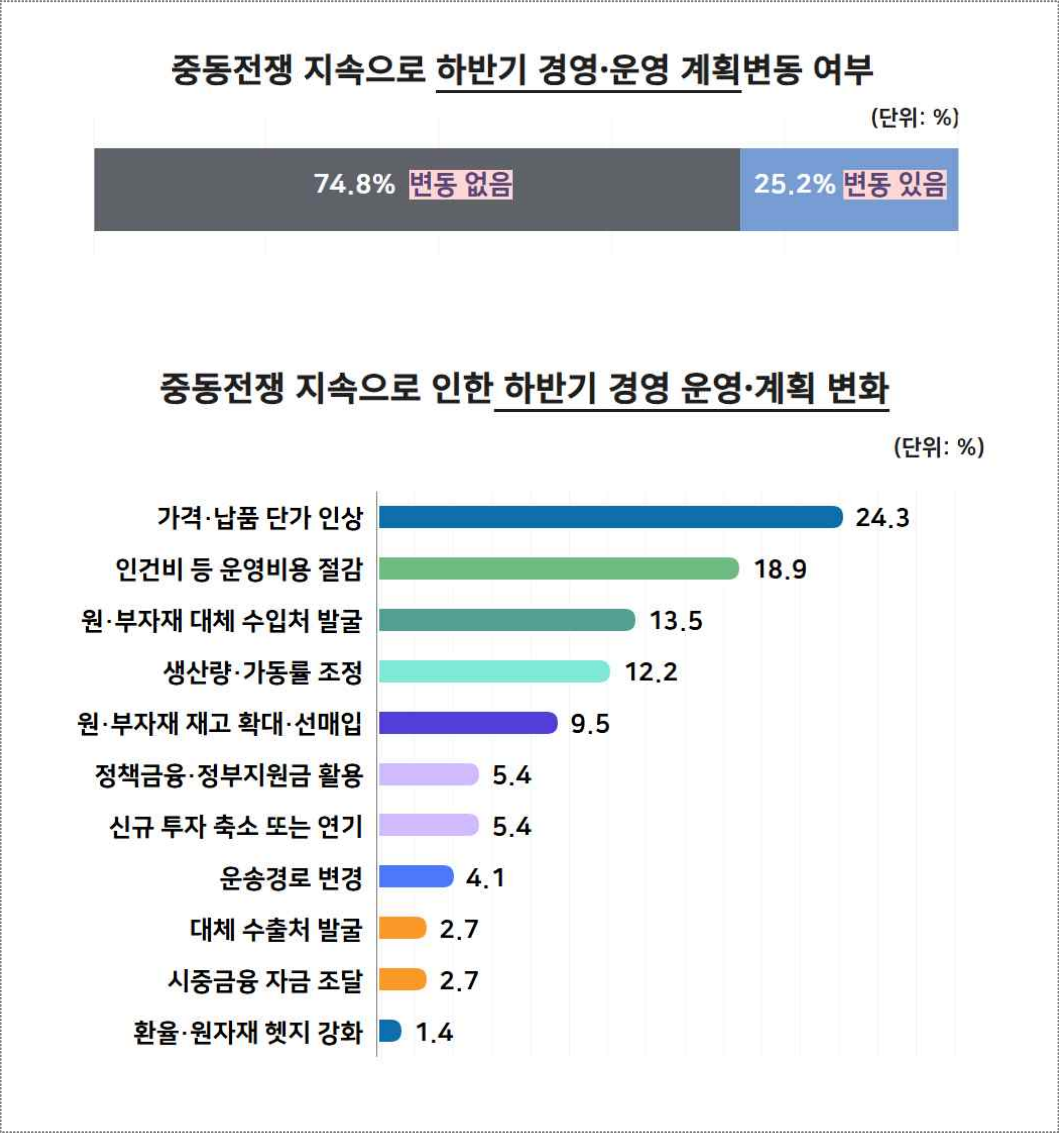
4. 기타 조사 내용

1)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해 귀사의 하반기 경영·운영계획에 변동이 있었습니까?

- 응답기업의 74.8%가 ‘변동 없음’ 이라고 응답했고, 25.2%가 ‘변동 있음’ 이라고 응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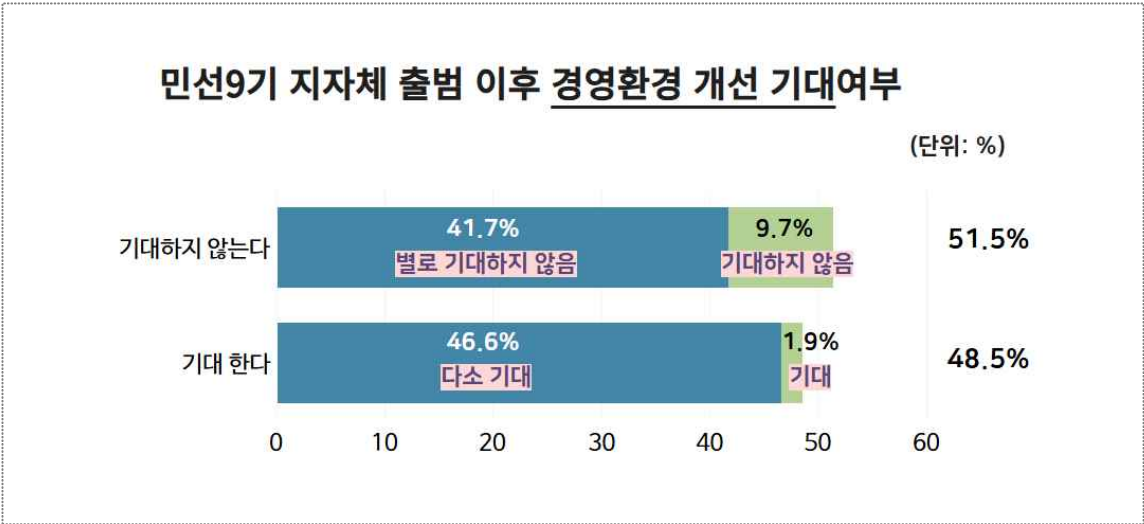
1-2) 귀사의 하반기 경영·운영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? (모두 선택)

- 변동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24.3%가 ‘가격·납품단가 인상’ 이라고 응답했고, ‘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(18.9%)’, ‘원·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(13.5%)’, ‘생산량·가동률 조정(12.2%)’, ‘원·부자재 재고 확대·선매입(9.5%)’, ‘정책금융·정부지원금 활용(5.4%)’, ‘신규 투자 축소 또는 연기(5.4%)’, ‘운송경로 변경(홍해·수에즈 우회 등)(4.1%)’, ‘대체 수출처 발굴(2.7%)’, ‘시중금융 자금 조달(2.7%)’, ‘환율·원자재 헷지 강화(1.4%)’ 순으로 응답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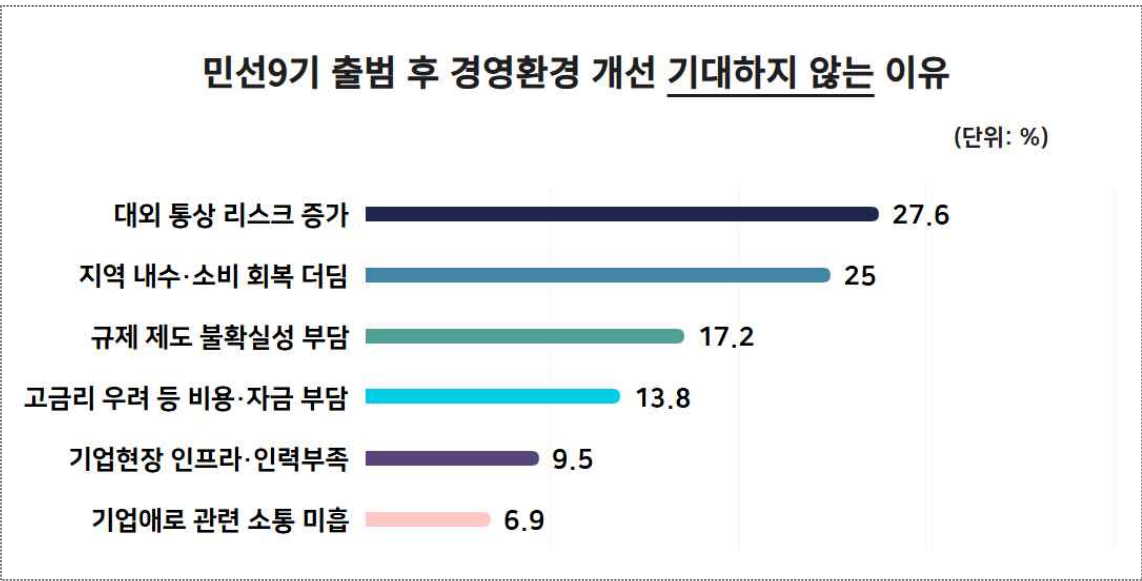
2) 7월 1일 민선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귀사가 소재한 지역의 경영환경이
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?

-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지역 경영환경 개선에 대해 ‘기대하지 않는다’ 라는 응답이 51.5% [별로 기대하지 않음(41.7%), 기대하지 않음(9.7%)]으로 나타났고, ‘기대한다’ 는 응답은 48.5% [다소 기대(46.6%), 기대(1.9%)]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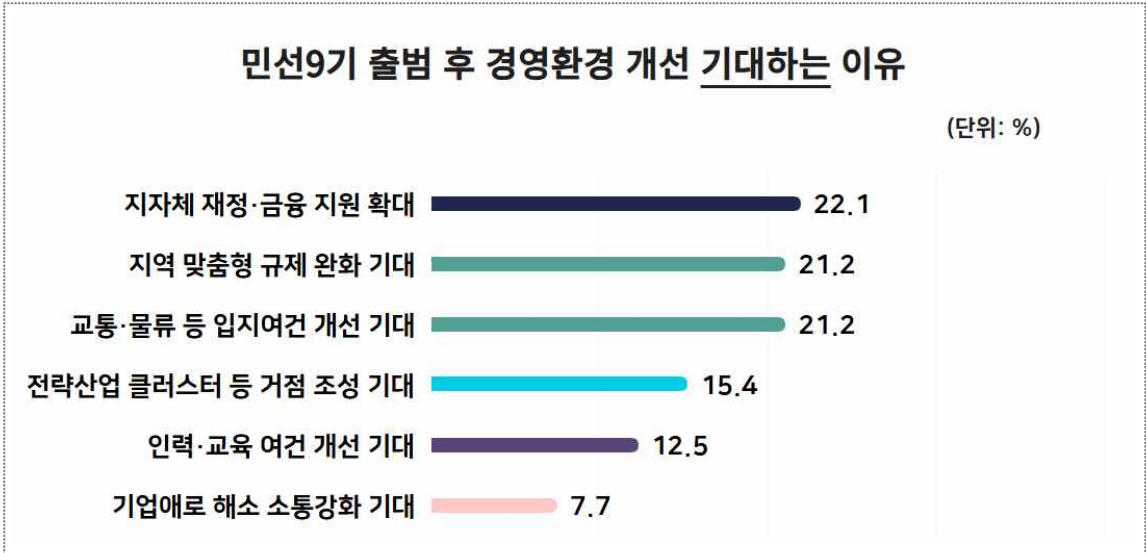
2-1) 상기 질문에 ‘기대하지 않음’, ‘별로 기대하지 않음’ 이라고 응답한 경우,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? (모두 선택)

- 응답기업의 27.6%가 ‘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’ 라고 응답했고, ‘지역 내수·소비 회복 더딤(25.0%)’, ‘규제 제도 불확실성 부담(17.2%)’, ‘고금리 우려 등 비용·자금 부담(13.8%)’, ‘기업 현장 인프라·인력 부족(9.5%)’, ‘기업애로 관련 소통 미흡(6.9%)’ 순으로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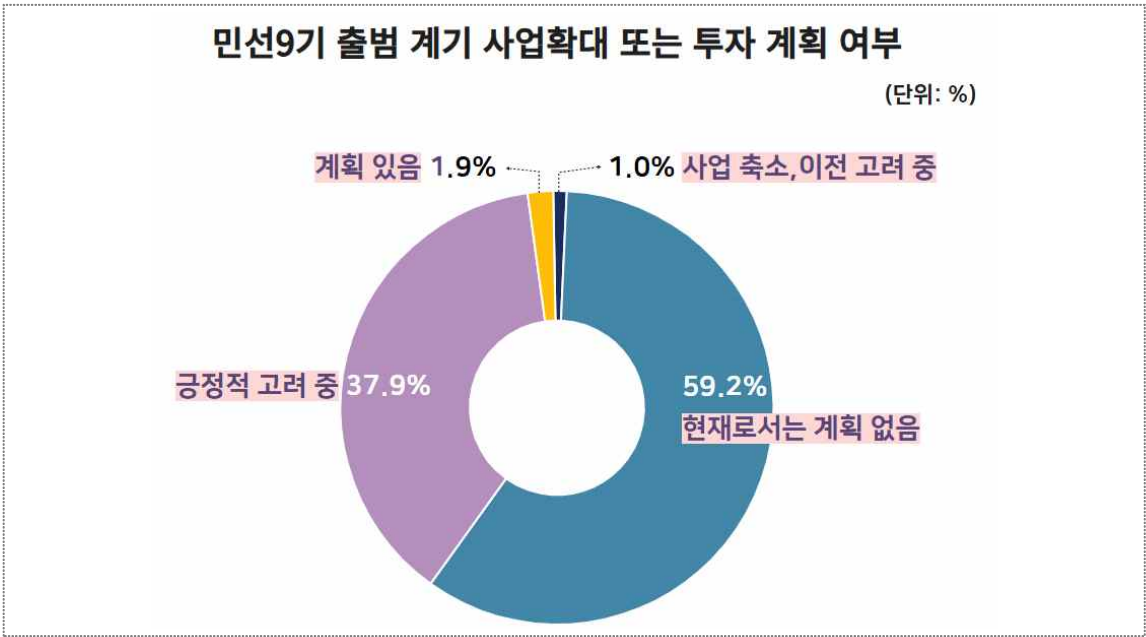
2-2) 상기 질문에 ‘다소 기대’, ‘기대’ 라고 응답한 경우,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? (모두 선택)

- 응답기업의 22.1%가 ‘지자체 재정·금융 지원 확대(지방세 감면,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등)’ 라고 응답했고, ‘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기대(21.2%)’, ‘교통·물류 등 입지여건 개선 기대(21.2%)’, ‘전략산업 클러스터 등 거점 조성 기대(15.4%)’, ‘인력·교육 여건 개선 기대(12.5%)’, ‘기업애로 해소 소통 강화 기대(7.7%)’ 순으로 응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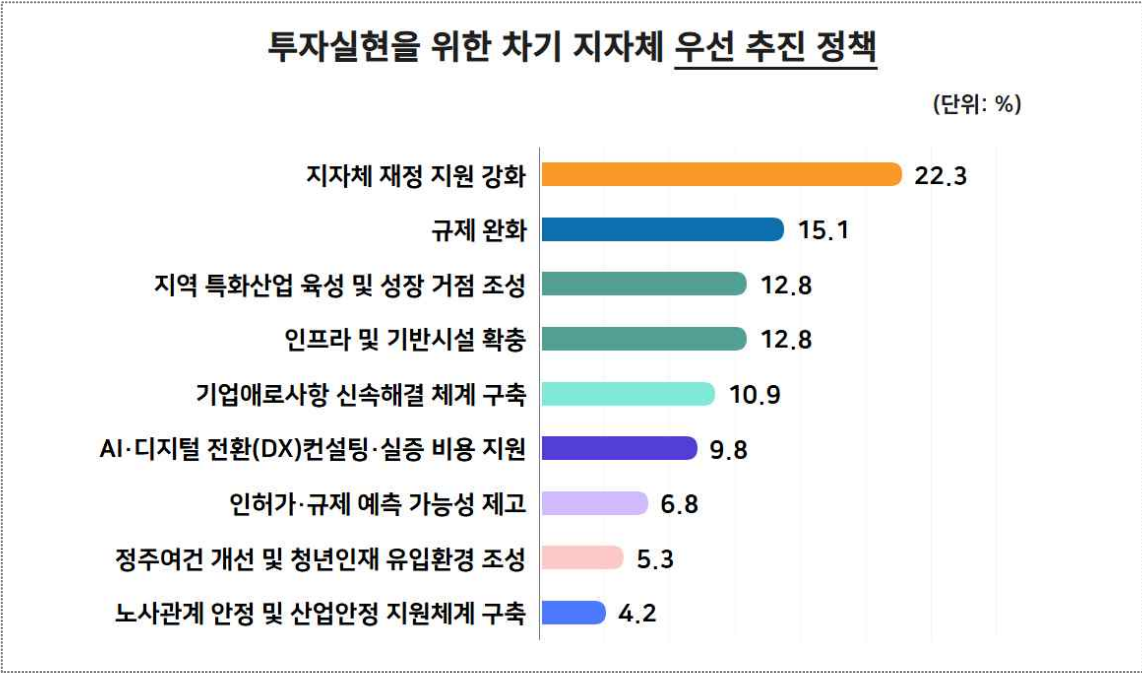
3) 귀사는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향후 지역 내 사업확대 또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?

- 응답기업의 59.2%가 ‘현재로서는 계획 없음’ 이라고 응답했고, ‘긍정적 고려 중(지자체 지원, 규제 개선 조건부)(37.9%)’, ‘계획 있음(구체적으로 검토 중)(1.9%)’, ‘사업 축소, 이전 고려 중(1.0%)’ 순으로 응답



4) 투자 실현을 위해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모두 선택)

- 응답기업의 22.3%가 ‘**세제 감면·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**’ 라고 응답했고, ‘입지·시설·환경 규제 완화(네거티브 규제로 전환)(15.1%)’, ‘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거점 조성(12.8%)’, ‘용지·도로·전력·물류 등 인프라 및 기반 시설 확충(12.8%)’, ‘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(10.9%)’, ‘AI·디지털 전환(DX) 컨설팅·실증 비용지원(9.8%)’, ‘인허가·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(6.8%)’, ‘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인재 유입 환경 조성(5.3%)’, ‘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안정 지원체계 구축(4.2%)’ 순으로 응답



- 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【T. 031-410-3030(#247)】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○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
○ 발행일: 2026. 7. 20.

[비매품]